

# 여성문학과 생명주의

이 덕 화\*

1. 죽음의 미학에서 생명의 미학으로
2. 광물성의 세계, 죽음의 미학
3. 새로운 역사 쓰기, 자신 일으켜 세우기
4. 생명주의 문학, 타자 꺼안기
5. 결론

## 초록

여성문학은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를 못견뎌, 그것으로 인해 생성된 문학이다. 그 요인은 다양하다.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파괴에 의해서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 인간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는가를 다룬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삶,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 인내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생명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통하여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문학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과 『불타는 폐선』은 극단적 산업 자본주의화의 경쟁구조 속에서, 맹목적인 개발바람과 함께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삶의 공동체와, 인간소외 현상을 야기하는 광물성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사랑과 상처』나 『에덴의 서쪽』에서는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보다는, 오히려 남자, 여자라는 이항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남성은 월등한 존재,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성을 타자화시켜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세계를 형상화했다. 이는 의사소통구조에서도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구조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를 벗어날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 평택대 교수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의식은 생명을 가진 개체 하나 하나가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아서 그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 이는 『토지』나 『혼불』의 주제, 인물, 소재의 유기체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환경을 살리는 길은 유기체적 세계관에 의해서,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간의 파멸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곧 생명의 집합체이며, ‘너’ 역시 생명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은 모두 우주이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그러기에 생명 하나 하나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주의의 근본원리를 새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죽음의 미학에서 생명의 미학으로

환경문제는 여성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타자화시켜 남성이라는 주체에 예속시킴으로써,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의 이성중심적 세계관에 의해서 빚어진 문제이다. 생태여성론(ecofemin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프랑수아 드 본느(F. d'Eaubonne)는 『여성해방인가 죽음인가』(1974)라는 저서에서 자연 파괴를 여성억압적 남성중심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파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의식보다는, 정복의 대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의 소산이다. 이는 물질만능주의를 확산시킨 자본주의에 의해서 더욱 심화된다. 자본주의는 남성을 제외한 여자, 자연,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을 타자화, 억압, 착취, 파괴함으로써 생긴 부를 축적하는 체계이다. 자본주의는 서구 근대사상의 근간이 되는 인간·이성 중심주의에 의해서 도출된 이분법적 사고체계에서 나온 경제체계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유기론적인 체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제국주의자와 식민지라는 이분법적 가치체계 속에서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 이성 중심주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성 이야말로 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믿었다. 즉 자연과 물질을 대상화하여 객관적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인간이 주체자로 그 대상을 판별하고 비판하여 용도에 맞게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성적 정확함 냉정함으로 판별하는 이성은 계산과 판단, 이름 붙이기를 통해 상대를 자신의 신적 주체성에 예측시키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의 통제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의식에서의 세상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체계화란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목적을 향해 치닫는 것이다. 이는 바로 남성적 세계관의 표출이며, 이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나의 사실, 진리의 이름으로 권리와 정당성을 줌으로써 다양한 사실들과 다른 사실들을 무시한다. 즉 관념적 허구적 사실들과 논증들을 이성적 합리성 구축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느끼기와 생명을 억압하는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체계는 하나의 진리의 이름으로 사물의 다양성,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미학이다. 죽음의 미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 진리의 양가성, 사물의 다양성, 그리고 무한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진리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이름으로 고정되고 정형화된 죽음의 미학이 아닌, 새로운 진리를 지향하는 흐름의 미학, 바로 생명의 미학이다.

프랑스의 여성문학자 이리가레이는 『근원적 열망』에서 ‘생명은 흐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흐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형체나 공간에 가둘 수 없으며, 세심한 관심을 통해서만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포착이나 소유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성, 흐름이 생명이다.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감각성, 세심한 주의력,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성은 바로 권위주의적 남성의 속성과 다른 여성의 속성이며 그렇기에 여성들은 자연친화적이다. 여기에 여성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이 있다.

홍용희는 「생명주의 문학을 위한 제언」(『꽃과 어둠의 산조』, 문학과 지성사, 1999)이라는 글에서 환경, 생태, 그리고 녹색문학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명칭의 혼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환경’이라는 용어 속에는 자연과 우주 생명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주변적 종속적인 객체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의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토대를 이루고 있고, 생태문학이라는 용어는 개체 생명의 독자성,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녹색문학이라는 용어는 상징적 비유로 이루어져 개념어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우주 생명이 지니는 영성,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구현한 생명주의 문학이 가장 적절한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문학의 특징이 되는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감각성, 세심한 주의력, 끊임없는 변화의 영속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생명주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첫 번째의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파괴에 의해서 생존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에서부터 작품을 형상화한 작가는 이남희와 한정희, 그리고 최근의 한강을 찾을 수 있다.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풀빛, 1992)과 한정희의 『불타는 폐선』(민음사, 1993)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즉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 에덴의 동쪽의 세계, 이경자의 『사랑과 상처』 1·2(실천문학사)와 인간적인 교감에 의해서 유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삶의 미학을 이루어 나가는 여성적 사회, ‘에덴의 서쪽’의 세계를 형성한 박정애의 『에덴의 서쪽』(『문학사상』, 1998. 7~10)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한강의 「내 아내의 열매」(『창작과 비평』, 1997. 봄), 최명희의 『혼불』, 박경리의 『토지』는 생명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통하여, 인간 상호간의 생명의 소통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2. 광물성의 세계, 죽음의 미학

인간·이성 중심주의 사고는 자연 상태는 불완전하고 위험하며, 혼돈스럽고 미개하므로 정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해 왔다. 그로 인해 자연을 인위적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 기계를 사용하는 것, 생존을 넘어서는 소유 욕구를 지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 상태의 동물과 인간을 변별짓는 특정한 능력으로 생각해 왔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인위적 형태와 욕구에 의해서 자신의 본능을 통제할수록, 또 정보화된 지식과 치밀한 계산된 이윤을 산출할수록 인간은 근대화된, 진보적 인간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그런 결과로 첨단 산업화, 극단적 산업 자본주의화된 사회의 경쟁구도 속에서 끝없이 가속도가 붙은 채 과거를 부정하며, 발전이라는 미래의 청사진 속으로 인간을 내모는 것이다. 결국 인간, 이성 중심주의의 결과는 인간소외와 자연파괴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전 우주적 생태계의 생존토대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현대인이면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광물성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것이다.

인간소외와 자연파괴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성 중심주의에 의한 현대는 결국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죽음의 세계이다.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광물성의 세계에서 삶은 바로 죽음 자체이다.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룬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과 한정희의 『불타는 폐선』을 보자. 이 두 작품은 극단적 산업 자본주의화의 경쟁구도 속에서, 맹목적인 개발바람과 함께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삶의 공동체와 인간소외 현상을 야기하는 광물성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의 배경인 당황리는 70년 이후 동남 임해공단의 하나로 조성된 온산공단이다. 평화롭던 동해의 한 어촌마을에 소득증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조성된 공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삶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잘살아 보자'는 캐뮼프레이와 함께 온 개발바람은 당황리의 마을 사람들을 순식간에 한탕주의자 내지 기회주의자로 만들어 버린다. 주인공 이해윤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토지보상금을 가로 채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는가하면, 이웃의 송이섭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기로 인해 화병과 알콜 중독자로 죽게되고 남매만 천에 고아로 남는다. 임해 공단이 조성되면서, 당황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의 오염은 극에 달했고, 바다 물질로 살아가던 이해윤의 어머니나 진아는 공해병으로 서서히 죽어간다. 동네는 죽은 마을처럼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나는 바로 폐허 그대로였다.

'잘살아 보자'라는 캐뮼프레이어로 시작된 근대화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당황리에 뿌리를 내리지만, 오히려 공동체적 유대를 가지고 있던 마을은 개인의 각자의 이기적 욕심에 따라 해체된다. 개발 바람에 덩달아 춤추다가 사기를 치고 달아난 주인공 해윤의 아버지, 사기를 당해 화병으로 양친을 비명에 잃은 천애고아 송이섭네 남매들, 농사지를 논밭을 팔아버리고 돈맛만 따라 다니는 마을 사람들, 공사장의 낯선 사람으로 우범지대화된 마을 모습,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나 오물로 썩어가는 바다. 이 하나 하나가 근대화의 이름으로 마을을 해체시키고 인간들을 사물화시킨다. 마을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살아있을 당시 해윤과 송이섭의 어릴 때의 모습을 살펴보자.

이 곳 버무리곳은 어렸을 땐 동네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마을에서도 좀 떨어진 곳에 있어 어른들의 간섭을 피할 수도 있는 데다 풀도 많고 솔숲도 우거져 봄부터 가을까지 소년들은 소먹이를 핑계삼아 이곳으로 몰려오곤 하였다. 끌고 온 소는 풀밭에 놓여 놔 작은 아이들이 지켰고 머리통이 더 굵은 소년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물장난을 하거나 조개나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항상 푸르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었던 듯 싶은 그 무렵 송이섭은 식당 하는 집 딸이어서 소를 먹이지 않는 해윤에게도 같이 놀자고 불러내었고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하였다. 나중에 해윤이 자라 더 이상 소먹이는 소년들과 바다에 뛰어드는 일이 없게 되자 송이섭은 한 마을에 살면서도 길고 감상적인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sup>1)</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해운의 아버지의 사기에 송이섭의 양친이 비명횡사하기 전, 평범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 해운과 송이섭은 서로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근대화의 바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진정한, 자연적인 상태의 근대화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들 스스로가 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권위적 체제나 질서를 제일로 삼는 군사 정부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특색은 무시한 채, 무조건 하달식 근대화를 시행함으로써,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 유대감을 말살하는 공동체의 해체로 드러난다. 자연적인 상태의 근대화는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정서를 제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 형태와 욕구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고 자연을 말살한다.

해운의 가족관계를 보자. 해운의 아버지는 근대화와 함께 온 개발바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돈을 끌어 땅투기를 일삼다 결국 빚으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해운의 어머니 역시 중화학 공장의 폐기물에 썩은 바닷물에 물질을 하다 피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해운 역시, 마을 인심의 흉흉함과 파헤쳐진 마을과 씩어들어가는 바다로 피폐해져가는 마을에서 건딜 수 없어 고향인 당황리를 탈출한다. 이웃인 송이섭네도 마찬가지로 땅사기로 돈을 잃은 송이섭의 양친이 비명횡사하자 송이섭의 남매가 몸붙일 곳을 찾지 못해 당황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이섭의 동생이 폐병을 앓게 되어 다시 당황리로 오지만 마을의 흉흉한 인심에 절망한다.

이 모든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경제

---

1) 이남희,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풀빛, 1992), p.49.

제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경제를 성장시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물질을 풍부하게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유토피아니즘의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류의 인간들이 죽어간다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은 누구란 말인가. 경제 제일주의, 극단화된 산업자본주의의 경쟁구도는 결과만을 중시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소외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부강한 나라가 됨으로써 자손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인간의 심성의 피폐함으로 오는 세계의 황폐화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대우받는다든 생각, 그럼으로 남을 생각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유기체적 세계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소외되거나, 사물화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삶의 과정이라도 그 과정 하나 하나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인간적인 존엄성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까지도 소중한 우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아낀다는 것이다.

『불타는 폐선』에서는 쌀 값의 고철수입을 기획하던 철강 기업이 중금속 폐기물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일본의 제의를 받지만, 고철수입에 따르는 막대한 이윤에 눈이 어두워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기업의 회장이나 이사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중편분량의 이 작품은 대기업 이사인 박인원의 개인 이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왜곡된 인간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분상승과 출세지향주의의 전형적인 인간형을 보여주는 박인원은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인물이다.

수입된 중금속 폐기물을 어둠을 이용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와의 충돌, 신문기자와의 충돌, 고철로 수입된 폐선에서 흘러나오는



가스발생으로 인한 담뱃불 인화, 그로 인한 배의 폭발, 박인원의 여동생이 중금속 중독으로 입원,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안 신문기자가 대기업의 부도덕성보다는 한 출세주의자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저지른 부도덕성으로 기사화된다. 그 장본인인 박인원은 회사에서 퇴출당한다.

이 작품에서는 대기업의 부도덕성이 한 인간의 출세를 위해 빚어내는 왜곡된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피해자들의 격돌에 대한 형상은 약화되고 있다.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회장과 그의 대화를 통해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만 전달된다.

이 작품에서 주요 모티브로 설정되어 있는 중금속 폐기물처리하는 인간을 사물화시키는 매개항이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중금속 폐기물을 제3국으로 처리케 하는 것은 자국민 외의 제 3국을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국내에서의 중금속 폐기물의 유출은 자신마저도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중금속 폐기물수입의 당사자인, 인원의 동생 인희가 중금속 중독으로 얼굴이 마비되고 몸이 반신불수되어 가는 상황을 통하여 드러난다.

인원과 인희는 다같이 역술가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나, 인원은 철저히 자기신분을 탈피하고자 하는 포부와 열망으로 철저히 과거를 부정하게 되고, 인희는 자신의 출신성분의 바탕 위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시각으로 부조리한 사회를 뚫고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진다. 두 사람 극치점에서 살아왔지만, 두 사람 다 죽음의 늪 속에 빠지게 된다. 인원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늪, 경쟁이라는 경제구도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티나갈 수 없는 극치점을 향한 내리막길에 이른 것이다. 인희의 포부와 열망은 모든 문제를 경제구도의 원칙에서 해결하려는 오빠 인원이 같은 경제동물에 의해서 폭식의 희생이 된 것이다.

인원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모두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다. 그의 아내 신애, 역시 특출한 신분출신은 아니었지만, 역술가의 아들이라는 열등감과 비굴함에 길들은 인원은 그 평범함마저도 부러움의 대

상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인물이다. 신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자신의 열등감과 비굴함의 보상으로 나타나지만, 진정한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끝까지 그의 가슴 속의 한은 풀 길이 없는 것이다. 인원은 ‘뻔뻔해지지 않으면 끝까지 올라 갈 수 없다’는 모토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역시 경제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뿐이다. 즉 자신의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 최고의 자리를 향한 집념만이 있을 뿐이다.

부두노조 사무실까지 걸으며 그는 부글거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인간구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보이던 놈들이 우선 제 몸 걱정부터 하고 드는 게 가소로웠다. 무조건 자기 일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그러니까 평생 저렇게 못살아도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 노동자들도, 운소장도 지금은 다 싫었다. 피부병은 무슨 피부병이야, 그까짓 피부병이 설렁생긴다 쳐도 생기면 좀 어때. 일이나 그저 빨리 끝났으면 싶었다. 빨리 공장의 제련과정으로 고철들이 넘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할 뿐이다.<sup>2)</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을 철저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 인원은 이번 고철수입과 중금속 폐기물처리를 원만히 해결하면 승진이라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나 인간적인 관계 형성에 조금의 기대도 가질 수가 없다. 오직,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조금할 뿐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관계의 단절이며 소외현상이다. 인간의 관계를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할 때, 그 이익이나 목적이 서로에게 합치되지 않을 때는 그 관계는 와해된다. 인원이 신문기자에 의해서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국민 전체를 담보로 중금속폐기물을 들여놓았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허위의 성은 무너지게

2) 한정희, 『불타는 폐선』(민음사, 1993), pp.28~29.

된다. 여기서 허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속이고 자신을 수단화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수단화, 모든 인간을 허위의식을 통해서 바라본 잘못된 성인 것이다.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에서는 개발의 바람과 함께 온 경제적 발전에 대한 환상은 ‘잘살아 보자’라는 미래의 보랏빛 꿈을 심어주었지만, 결국 빈부의 극심한 격차와 산재 왕국과 공해천지의 국가라는 불명예만 남게 되었다. ‘잘살아 보자’는 경제논리 속에는 인간다운 삶보다는 수적인 논리, 생존 욕구를 넘어선 소유 욕구만이 남는다.

『불타는 폐선』에서는 대기업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나, 짐승쟁이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열등감의 치유, 보상시켜줄 출세만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기에 어려운 동생을 돌보는 일이나,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보다는, 출세를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고, 출세를 위해서 회장과 만남에 흥분하고, 여기에는 인간 본연의 따뜻함이나 그리움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 입신 출세라는 하나의 명제를 내세우고, 그 외의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성, 인간중심주의,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물질성, 이성, 형제, 경계, 소유, 단단함을 중시하는 남성권위주의에서 오는 죽음의 미학이다. 이것은 바로 단단함의 속성을 지닌 광물성의 세계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자연의 파괴와 인간 소외만이 남을 뿐이다.

환경문제는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서 야기된, 자연을 이윤이라는 인위적 목적아래 재단, 변형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남성들을 자연에 막강한 형태를 부여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연은 고정된 형태 안에서는 죽게 되는 것이다.

### 3. 새로운 역사 쓰기, 자신 일으켜 세우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은 주체 외의 타인, 혹은 사물 모두를 타자화시킨다. 선진국은 자국 외의 제3국을 타자화시켜 식민지화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족 속에서는 부인과 자식을 타자화시켜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타자화된 부인과 자식들의 주체적인 삶은 없고 오직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삶, 노예의 삶이 있을 뿐이다.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타자화된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지배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은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때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전문직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경자의 『사랑과 상처』에서는 남자라는 우월의식만을 가지고 갖은 횡포를 부리는 남편과 그 남편의 횡포에 황폐화된 가정을 끝까지 추스르는 부인의 인내의 삶이 대비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부인의 인내의 삶은 철저한 가부장적 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 공선옥의 작품들에서는 여성들의 타자화된 남편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강고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박정애의 『에덴의 서쪽』에서는 주체적인 여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경자의 『사랑과 상처』의 주인공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현모양처로서, 남편에게는 현숙한 여인으로, 자식에게는 좋은 엄마로 가족에게 끝없는 희생을 바치는 가부장적 의식이 내면화된 여인이다. 이것은 완고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연시된 여자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내면화된 의식이었다.

우리 딸들 모두가 그랬지만 큰언니는 더더욱 '학대'받았다. 큰언니에겐 세상에 있는 욕이 모자랐고, 시간이 없어 매질을 못했다.<sup>3)</sup>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때를 친정엄마가 수도 없이 맞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 후 남편의 돌발적인 매질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친정엄마의 매질을 당연시해 온 것과는 달리 남편의 자신에 대한 타자화는 두려움으로 온다. 그 두려움을 ‘비정한 두려움’, ‘가혹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이 그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sup>4)</sup>

주인공의 남편은 철저한 가부장적 세계에서 길들여진 남성적 우월주의를 체화한 인물이다. 그는 가족을 철저히 보호하고 거느려야 한다는 온건적 가부장적 의식보다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남근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우월하게 대접받는 남성 우월주의 의식이 강한 인물이다. 즉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남성으로서 대접받는 문화에 더 익숙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밥이 늦는다고 때리고 밥이 질다고 때리는 남자의 뿔뿔 하나 가지고 사는 인물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만손자로 철저한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만, 심리적 충족감은 채울 수 없고, 끝없는 바람기와 행패로 온 가족을 괴롭힌다. 남편은 성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보다는, 즉흥적이고 다혈질인 불안정한 정서적 소유자다.

남편의 끝없는 바람기와 행패로 가정 경제는 언제나 파탄지경이고, 그로 인한 주인공은 벼랑 끝에 선 위기감 속에서 주위의 허드렛일은 도맡아 겨우 연명한다. 죽음과 같은 나날은 남편과의 인연을 끊지 않는 한 지속되리라는 것을 주인공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은 주인공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 한 집안의 며느리로 죽어도 그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주인공은 남편의 바람기와 행패에 치를 떨며 평생을 인내하는 죽음과 같

3) 이경자, 『사랑과 상처』 1권(실천과문학, 1998), p.23.

4) 위의 책, p.100.

은 삶을 산 것이다. 그녀가 남편과 떨어짐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 결국 남편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야 주인공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사랑과 상처』에서의 주인공은 남편의 바람기와 행패가 부당함을 직시하지만, 가부장적 의식이 내면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에덴의 서쪽』에서의 주인공은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의 부당함을 일찍 인식한 동서로부터 의식화되고, 동서와 함께 집을 떠난다. 이 떠남은 바로 자신 일으켜 세우기의 전단계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편을 떠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랑과 상처』의 주인공처럼 똑같이 죽을 고생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생이기 때문에, 고생 가운데서도 참자유를 누린다.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하는 가정에서의 억압과 고통을 떠난 참자유 가운데서 혈연 가족을 초월한 진정한 인간간의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에덴의 서쪽』에서의 주인공 똥님의 참자유는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하는 남편을 비롯한 시집 식구와의 관계를 끊고 홀로 쓰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자유였다. 또 주인공의 의식 속에 가부장적 의식이 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팔리다시피 다리 한 쪽 없는 부자 양반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 때 되면 밥상 들어가고, 의복 시중 들어주고, 방소제나 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동서의 도움을 통해서이다. 또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동서끼리 의기투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인 관습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똥과 같은 억척으로 인간적인 따스함을 견지해 나간다. 이 인간적인 따스함은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부장적인 따스함이 아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따스함이다. 『에

텐의 서쪽』의 인물들의 참자유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사랑과 상처』와는 다른 여기에는 억압과 굴욕에 의한 비굴한 삶은 없다.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있다. 여기에 주체적인 삶, 인간의 정체성의 의미가 있다. 즉 『에텐의 서쪽』에서는 기존 가부장적 의식을 재생산하는 가정이나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한 억압구조를 벗어나, 인간의 개인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새로운 동성에 혹은 자매애, 가족 단위를 벗어난 인간과 인간간의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의 상처』나 『에텐의 서쪽』에서 남성들이 지배하는 가정이나 사회는 죽음의 세계로 드러난다.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일상을 지배하는 관습 역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단함, 즉 광물성의 세계다.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서보다는, 오히려 남자, 여자라는 이항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남성은 월등한 존재,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성을 타자화시켜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한다. 이는 의사소통구조에서도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구조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한다.

#### 4. 생명주의 문학, 타자 깨안기

생명주의 문학은 남성의 권위주의적 속성과는 다른 끊임없는 변화의 영속성, 포용성, 다양성, 열려진 세계, 부드러움, 상호침투, 감각성, 자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는 문학이다. 여성문학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와 『혼불』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생명주의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의 한강의 작품, 「내 아내의 열매」에서도 인간의 잃어버린 우주와의 교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유약성은 바로 물과 대지, 공기와 태양, 에너지 속에서 교감하는 우주적 생명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한강은 「내 아내의 열매」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내 아내의 열매」에서 주인공의 아내는 처녀 때는 ‘자유로운 공기로 낚은 폐를 씻고 싶다’며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했고, 결혼 후에는 상계동 밀폐된 아파트에 적응하기 힘들어, 끊이지 않는 잔병치레와 원인 모를 몸의 멍투성이로 고통을 받는다. 아내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심은 야채나 화초도 마찬가지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결국 아내는 베란다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태양과 물과 공기와의 교감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 뒷부분에 가서 알레고리로 처리한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벽이 두터움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시멘트, 밀폐된 공간은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는 단단한 광물성이나 마찬가지로. 주인공 역시 남자로서 광물성이다. 주인공은 같은 광물성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도, 견고한 시멘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내에게 밀폐된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고 참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주인공에게는 ‘지난 삼년은 나에게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의 공간이고, 희망의 공간이다. 이것은 남자들은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여성이나 자연에 대해 억압적인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억압의 대상자로서보다는 억압의 가해자로 광물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

나는 홀린 듯이 싱크대로 달려갔다. 플라스틱 대야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내 썩은 걸음에 맞추어 흔들리는 물을 왈각왈각 거실 바닥에 쏟으며 베란다로 돌아왔다.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은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다시 한 번 물을 받아와 아내의 머리에 끼얹었다. 흠뻑듯이 아내의 머리카락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내의 번득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체머리를 떨었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창작과 비평』, 1997. 봄, pp. 192~193)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흐름을 차단당한 삶, 광물성의 세계에서 생명의 숨쉬임, 식물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식물성의 속성을 가진 여자와 채소, 화초는 광물성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식물성을 회복할 때만이 삶이 가능하다. 단단한 광물성으로 생명의 흐름을 차단 당한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고, 생명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며 그 때만이 참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생존이 가능한 현대인은 알레고리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을 만날 뿐이다.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생명사상이나, 최명희의 『혼불』에 나타난 ‘혼불’의식은 작품의 전개과정은 다르지만, 우주의 질서 혹은 조화에 공간을 둔, 생명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아닌 타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토지』에서는 신분이 다른 인간상호간의 겨안기는 물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박경리의 천지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운명론과도 맞닿아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우주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수(恨)를 깨닫고 허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장 사상이서 이야기하는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다.

『토지』에 나타난 생명사상은 생명에의 연민으로부터 시작된다.

『토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생명, 그 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누르던 그들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삶과 생명에의 연민-글쓰게 하는 힘은 바로 그 생명에의 연민이지요.<sup>5)</sup>

---

5) 송호근, 「삶에의 연민, 恨의美學」(『작가세계』, 1999. 가을), 박경리와의 대답, p.49.

생명에의 연민은 ‘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어, ‘나-타자’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나’와 ‘타자’가 서로 상호침투에 의해서만 연민에의 감정이 발생한다.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이나 우월 의식은 ‘나’와 ‘타자’를 이항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타자’를 분리, ‘내’가 우월하면, 상대방인 ‘타자’는 열등, ‘내’가 열등하면, 상대방은 우월한 것으로 거만과 비굴의 굴레 속에서 교차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러나 인간을 좀더 열린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의식 속에서 타자의 모든 잘못도 자신이 저지를 수 있다는 시각, 타자의 허물이 바로 나의 허물이라는 ‘나’와 ‘타자’의 상호침투 속에서 타자에 대한 포용성을 가지게 되고, 그 포용성 속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토지』에서 ‘나’와 ‘타자’와의 상호침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명에의 연민은 용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용이의 임이네와 월선이에 대한 사랑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감각성과 자연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용이의 조강지처인 강창택이 살아있는 중에, 용이가 임이네의 눈부실 정도의 생명적인 매력에 도취되는 것은, 농민으로서의 보수성향이 있는 자신에게보다는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에 자신을 맡겼음을 보여준다. 임이네는 살인자의 아낙으로 동네에서 쫓겨나, 걸인행세를 하다 다시 동네에 나타난 여인이었다. 이는 용이의 내면 속에 살인자의 여인이라는 사실도, 끼니를 위해 걸인에게 몸을 판 여인이라는 사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나도 그런 상황에 부딪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웃의 상황에 대한 이해이고, 이는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다.

이런 사랑의 정신은 월선에게도 나타난다. 용이와 월선이와는 어긋난 운명으로 서로 부부의 연은 비록 맺을 수 없었지만, 혈연 가족의 개념을 초월한 보살핌의 미학을 보여준다. 처음 두 사람은 연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연연해 했지만, 두 사람 관계는 차츰 연륜이 쌓일수록, 서로를 진심으로 살피고 돌보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언제나 염려하고 아끼는 연인의 사랑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토지』에 나타난 우주의 질서 혹은 조화에 근간을 둔 생명사상은 생명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타자’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자의 사랑은 우주의 조화나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생명사상의 근간이 되는 유기체적 존재론은 『토지』에서 길상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의 유기체적 연관성이나 길상이의 구도의 사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토지』라는 소우주 속에 인물들은 각기 자신의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인물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곤 한다. 다른 소설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이 초점이 되어 온 것과는 다르다. 『토지』에서는 1부에서는 윤씨부인, 2·3부에서는 서희와 길상이, 4부에 와서는 신지식군과 자본주의화됨에 따라 장사나 운전수, 식당업 등의 직업에 뛰어 든 소시민 군상들 등등, 시대적인 상황에 적절한 인물들이 배치되고, 서희나 길상이가 배경적 인물로 사라지게 된다. 인물의 유기적 연관성은 인물과 인물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가지지만, 역사적 구체성과도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김개주에서 김환으로 이어지는 동학군들의 팔복과 질서, 길상이를 중심으로 한 서희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용이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인간적인 애환과 사랑, 신여성이나 신지식군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구조,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의 한을 시대를 매개로 풀기도 하고 다시 한을 품기도 한다. 즉 객관적 현실을 닮은 『토지』라는 소우주 속에서 유기적 연관선상에 있는 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또 길상이 지리산에서 관음상을 완성하고 구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작가의 유기적 존재론이 의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길상은 신분적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인물이다. 하인의 신분에서 양반 처녀와의 결혼은 허구를 다루는 소설작품에서조차 현실적이기보다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것이다. 이것은 박경리가 ‘우주의 비정한 메카니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은 각기 자기의 풍수, 혹은 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유기적 존재론에 기초해 함부로 작품의 인물을 만들 수 없는 때문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서희와 길상은 현실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다. 즉 길상과 서희와의 결혼은 길상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희와 결혼을 했지만, 서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독립군으로 만주에 남지 않으면 안 되고, 감옥 속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서희의 가족 안에서 두 아들을 통해서만 길상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다. 길상의 몸체는 없고, 단지 상징성만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도의 길인 관음상을 완성하기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별당아씨와 함께 도망간 김환이나 윤씨 부인을 범한 김개주 역시 동학을 이끌 수밖에 없는 작품 속의 운명인 것이다.

『혼불』 역시 작품에 나타난 혼인풍속, 제례, 장례절차 등의 다양한 풍속,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풍물의 환기 등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역사 혹은 신화 속의 다양한 인물들의 인유, 신분간의 갈등, 다양한 사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유기체적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명희는 민족적인 유기체적 연관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탐색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한부분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움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탐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명희는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가장 쓰라림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진 인간만이 생명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탐색을 한다.

자기 가슴 속에 썩은 자리가 있으시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감수성과 '생명성'에 대하여 한 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혼, 나의 문학 중에서)

위의 인용문처럼 최명희는 생명성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찾으며, 또 고통 속에서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탐색을 한다. 고통이 시작될 때는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쓰라림으로 현실을 초월하게 된다. 현실을 초월한 쓰라림은 감각과 하나의 의식으로만 남는다. 고통 속에서 보되, 감각을 통해서만 느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만남이다. 최명희의 존재탐색은 바로 참 생명을 만나기 위한 존재 탐색이다. 밝음, 만발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보다 어둠, 고통, 쓰라림을 통해서 그 대상을 느끼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성의 회복이고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다.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의식은 생명을 가진 개체 하나 하나가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아서 그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자의 무위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적 특성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제도나 관습 혹은 문화, 지성, 등의 질서나 규범보다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존재와 세계와의 거리가 메꾸어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우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간의 파멸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곧 생명의 집합체이며, ‘너’ 역시 생명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은 모두 우주이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그러기에 생명 하나 하나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주의의 근본원리를 새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물질성, 이성, 형체, 경계, 소유, 단단함의 특징을 근간으로 하는 남성의 이성중심적 사고와는 달리, 부드러움, 흐름, 무소유, 상호침투, 무정형, 감각성, 자연성의 특징을 근간으로 하는 여성의 직관주의적 사고는 사물

과 정신, 모든 현상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현상 속에 어우러져 있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남성적 세계관과 여성적세계관은 흙과 나무, 흙과 나무들을 자르는 광물적 속성을 지닌, 철과 청동, 구리, 다이아몬드와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성들은 단단함의 속성을 지닌 광물성이며 여성들은 식물성이다. 식물은 물과 대지, 공기와 태양, 에너지 속에서 교감하는 가장 우주적 생명체이며 그 유약성으로 생명을 지닌 것들의 거처가 된다.

대부분의 여성문학은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를 못 견뎌, 그것으로 인해 생성된 문학이다. 그 요인은 다양하다.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파괴에 의해서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 인간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는가를 다룬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삶,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피해가기 위해 인내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생명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통하여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문학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간소외와 자연파괴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성 중심주의에 의한 현대는 결국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죽음의 세계이다. 생명의 흐름이 차단된 광물성의 세계에서 삶은 바로 죽음 자체이다.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룬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과 한정희의 『불타는 폐선』은 극단적 산업 자본주의화의 경쟁구도 속에서, 맹목적인 개발바람과 함께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삶의 공동체와, 인간소외 현상을 야기하는 광물성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사랑의 상처』나 『에덴의 서쪽』에서도 역시 남성들이 지배하는 가정이나 사회는 죽음의 세계로 드러난다.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일상을 지배하는 관습 역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단함, 즉 광물성의 세계다.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다는, 오히려 남자, 여자라는 이항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남성은 월등한 존재,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성을 타자화시켜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한다. 이는 의사소통구조에서도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구조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

한다.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의식은 생명을 가진 개체 하나 하나가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아서 그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제도나 관습 혹은 문화, 지성, 등의 질서나 규범보다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존재와 세계와의 거리가 메꾸어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우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환경을 살리는 길은 유기체적 세계관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간의 파멸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곧 생명의 집합체이며, ‘너’ 역시 생명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은 모두 우주이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그러기에 생명 하나 하나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주의의 근본원리를 새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Abstract

### The Feminism Literature and Environment

Lee, Duk - Hwa

Feminist literature emerged because women could no longer endure the blocking of the flow of life. It originated from many factors. Some works delve into direct factors that block existence according to environmental or ecological destruction, and deal with how life is devastated. Others represent humane life or the life of endurance to avoid factors that block the lives, and represent the flow of life through an organic view of the

world, based on thoughts about life.

*Long separation from the sea* and *Burning Shipwreck* represent the community of life, which is gradually disintegrating due to reckless development in the competitive world of extreme industrial capitalization. It also represent the world of death, a mineral world that causes human isolation.

*Love and Hurt* and *West of Eden* represent a world in which people live in a binomial contrast between men and women by regarding men as superior and women as inferior, and by oppressing and restraining women.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that hinders true human relations dominates this world, through vertical and uniform communications structures. These works show that true freedom and proper inter-sexual relations could only be obtained by escaping from the structure.

The concepts of life in *Toji*(land) and *Honbul*(spiritual blaze) build on an organic world-view, in which we seem to live in a satisfying universe that exterior pressure cannot destroy. This acts as a basis for organic interrelations between the themes, characters and plots of *Toji* and *Honbul*.

The only way to revitalize environment, which is being destroyed under the veil of modernization, is to see, through an organic world-view, that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also destroys people. 'You' and 'I' are both integrated living units. All the living creatures from a universe. You are I, and I am you. we should understand the principle of life theory ; we should respect the dignity of all living creatures.